



# 노동자들의 영혼이 잠든 솔발산 공원묘역

글 · 김순천 timeksc@hanmail.net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봄꽃과 뒤섞인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높은 산 가득히 수천 개의 무덤들이 나타났다. 마치 페루 마추픽추의 오래된 도시처럼 조금은 성스럽고 고요하게 묘지들이 내려앉아 있었다. 부산 온천장에서 하루에 하나 밖에 오지 않는 버스가 취소되어 노포동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올 때만 해도 도로 쌓여져 있는 이런 아름다운 묘역을 만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넓은 곳에 열사들의 묘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했다. 관리 사무소 앞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연못 바로 앞에 타원형 커다란 돌 위에 ‘투쟁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라’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의외로 쉽게 열사묘역을 찾은 것이다. 게다가 그 돌 옆에는 판화 그림처럼 열사들의 무덤이 새겨져 있는 지도까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 노동자들의 깊은 외로움

지도를 따라 산 정력으로 올라가자 열사들의 묘가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묘지는 김주익 열사의 무덤이었다. 한진 중공업 지회장이었던 김주익 열사는 2003년 회사 측의 손해배상 가압류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여 129일 동안 혼자 35m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부산 범일동에 있는 부산정남울산(부울경)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병철(46)씨는 “저는 주익이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익이는 항상 진실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못 잊는 게 죽기 전날, 주익이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땅을 밟아야할텐데……’ 하니까 ‘투쟁 다 끝나면 안 밟겠나’ 하고 평상시처럼 이야기해서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김주익 열사는 속이 깊은 사람이었다. 85호기 크레인에 올라갈 때에도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혼자 결단을 하여 올라갔다. 그의 비석에는 자신이 쓴 유서가 새겨져 있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오랜만에 맑고 구름 없는 밤이구나.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다 되어 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 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한번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을 한 모양이다

크레인 위에 올라가는 것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었던 그의 깊은 외로움이 통증으

로 다가왔다. 그 외로움은 나의 상상력으로는 짚 수가 없는 것이었다. 김주익 열사 묘 근처에는 같은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창수 열사, 김주익 열사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4도크 바닥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던 광재규 동지를 비롯하여 대봉미싱공으로 일하다가 옥상에서 몸을 투신한 권미경 열사, 현대 자동차의 양봉수 열사, 두산 중공업의 배달호 열사 등 많은 분들이 누워 있었다. 대부분 영남지역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IMF 이후 극심하게 악화된 노동조건에 항거하다 죽음을 맞았다.

**그들은 모두 고민하는 인간들이었다**

솔밭산 묘역은 1991년 전교조 합법화 투쟁 중 운명한 신용길 열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32분이 묻혀있다. 2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솔밭산은 자연스럽게 영남지역 투쟁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 되어 민주적인 소통공간이자 체험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6년 부산, 경남, 울산지역의 추모단체들과 민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열사묘역을 조성하고 처음으로 합동 추모제를 치렀다. 5·18 묘역이나 4·19 묘

페루 마추픽추의 오래된 도시처럼 조금은 성스럽고 고요하게 묘지들이 내려앉아 있는 경남 양산 솔밭산 묘역



▲ 병역특례로 투쟁하다가 목을 매 자결을 한 조수원 열사의 사물함에는 빛바랜 학 수천 마리가 들어 있었다.  
 ◀ 솔밭산 묘역은 1991년 전교조 합법화 투쟁 중 운명한 신용길 열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32분이 묻혀 있다. 2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솔밭산은 자연스럽게 영남지역 투쟁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 되어 민주적인 소통공간이자 체험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역처럼 화려하고 웅대하지는 않으나 다른 일반 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소박하게 놓여있는 모습이 오히려 아름다웠다.

묘 옆에는 열사들의 개인적인 기록이 담긴 편지, 일기장, 사진들이 들어있는 투명하게 비친 유리 사물함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분들의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이 체온으로 들어와 생전의 모습들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병역특례로 투쟁하다가 목을 매 자결을 한 조수원 열사의 사물함에는 빛바랜 학 수천 마리가 들어 있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자로 입사하여 4년 6개월을 복무했지만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어 만료기간 6개월 남겨두고 군대에 끌려가야할 상황에 놓여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원아, 왜 죽어서도 무릎 꿇고 구슬피 울고 있느냐..... 가슴 치지 말아라. 혼로 짊어지고 온 천근만근 짐일랑 내려놓고 편히 누워라, 아들이

조수원 열사의 염원이 되살아나기를 종이학에는 동료들의 애뜻한 마음이 녹아있었다. 묘 사이를 걷다보니 누워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더 마음에 와 닿는 분들이 있었다. 배달호 열사와 박일수 열사.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월급을 가압류 당해 한 달 월급 5만 8천원 밖에 받지 못했던 배달호 열사. 삶의 끝으로 몰려 이른 새벽 2003년 1월 9일 그 추운 날 그가 일하던 작업장, 보일

리공장 옆에서 혼자 외롭게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시커멓게 탄 그의 시신은 스님의 분신공양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불길을 다 받았고 오르라질 대로 오르라져 어린애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주의 열사만큼 외로웠던 그의 영혼은 어린애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커다란 언덕이었습니다” 부인 황길영 씨는 아직도 겨울이 오면 아픔이 일고 남편을 기다린다.

곽재규 열사 뒤편에 누워있는 박일수 열사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가를 매 시간, 매 초마다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다. 그가 분신할 때 벗어놓은 점퍼 호주머니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를 호소하는 3장짜리 유서가 발견되었다. 그가 원한 것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 체불임금 달라, 초과 근로수당 달라, 월차, 연차 수당 달라. 그가 받은 월급도 현대중공업 직영 노동자들의 60%로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체불했던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를 강제해고 시켰다. 현대중공업은 해고통지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박일수 열사의 모든 전산 기록을 말소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해야하는 것이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현대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 비리, 착취, 직영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대하는 행패 및 멸시, 고위관리직 이사부터 하위관리직 팀장까지 안 씌은 곳이 없고 (하청의) 상납의 추악한 고리에 향락, 접대에 연결이 안된 개새끼들이 없다. 상납되는 돈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를 팔은 돈 잔치이다



넓은 솔밭산 묘역에서 열사들의 묘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일반 묘와 다른 묘비를 해 놔 어디에서든 눈에 띄게 해 놓았다.

그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가 다른 한편에서는 회사 자체 비리로 얼룩지고 부패되어 있는 속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그것을 그는 깨끗이 정화시키고 싶어했다. ‘나서면 중공업 밥 못 먹는다’ 두려움에 차마 나서지 못했던 노동자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실명을 직접 내걸며 비정규직 차별 현실을 드러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자신의 진실된 노동 대가를 인정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이다.

2009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지난 1991년 22살 나이로 옥상에서 투신한 미싱공 권미경 열사의 삶에 멈춰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 강도가 세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벌이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현장 관리자들은 초시계를 재면서 어린노동자들을 다그쳤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권미경 열사의 팔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일수 열사의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외침과 겹쳐진다. 1991년 권미경 열사가 인간이기를 갈망했듯이 비정규 노동자들도 인간이기를 갈망한다.

회사 쪽에서 마지막 합의안을 읽어버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주의 열사도, 굴복을 강요하고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이 바닥까지 간 배달호 열사도, 더 이상 견뎌볼 수 없었던 박일수 열사도, 국가(세무서)로부터 유류보조금 환급

분을 압류시켜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어 분신한 화물노동자 김동운 열사도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열사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지점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간직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었다. 그들은 모두 고민하는 인간들이었다.

‘고민하는 인간은 도움이 되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정신의학자 빅터 E. 프랭클은 말했다.

### 너는 벌써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

“솔밭산 묘역을 한 10번도 넘게 갔어요. 처음에는 슬펐는데 지금은 열사들의 마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부울경 열사정신 사업회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서운경 씨(38)에게 왜 사업회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솔밭산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사람들이었다. 열사들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진솔하게 들여다 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권미경 열사를 설명할 때는 ‘터질 것 같은, 짹짹 쪼여오는 현장 분위기’를 드러내서 전달하기도 하기도 하고 전노협을 결성하면서 대기업노조를 엮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안기부에 쫓긴 박창수 열사 같은 경우는 긴박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와의 약속을 깨고 신차를 투입하여 항의 차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가 해고된 양봉수 열사는 회사와의 극한 적인 대립상황에서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 그는 병상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살고 싶다. 노동조합을 사랑한다…… 다시 돌아가 함께 하겠다” 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29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서운경 씨가 기억에 남은 열사 중에 한 분은 여기에 묻힌 다른 열사들에 비해 특이한 이력을 가진 박관수 동지라 했다. 그 분은 38년 일본 동지사대 재학 중 반일운동으로 퇴학을 당하고 해방 때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한 분이다. 한국전쟁 때 지리산에 입산하여 교전을



더 머무르고 싶었다. 비 내린 솔밭산 묘역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 기슭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열사들의 삶과 정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별이던 중 체포되어 33년을 감옥 안에서 지냈다. 33년을 감옥에서 보낸 것은 우리 역사의 깊음 아픔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 신념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다.

솔밭산 묘역을 돌아 나오는데 자꾸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안개가 이리저리 몰리는 날이지만 날이 맑게 개이면 열사들이 누워있는 동산에 파스하게 봄별이 내리쬐 것이다. 그 분들이 내뿜는 청량한 공기와 좋은 빛이 있어 우리들 삶의 깊은 한 자리가 빛날 것임을 믿는다.

“너는 날마다 죽었고

너는 벌써 날마다 다시 태어났다”

《나는 너를 하늘에 묻는다》 중, 서해성 *서해성*

글 김순천 | 르포문학, 청계천 사람들 삶의 기록 『마지막 공간』과 세계화 시대 비정규직 사람들의 이야기 『부서진 미래』의 책임 저자